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9. 11. 14.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류하경 활동가/법률대리인	010-9109-8630
	배포일시	2019. 11. 14. 목	총 2매 (별첨 0건)

## 한국맥도날드와 햄버거병 피해아동 간 민사합의에 대한 단체 입장문

-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사는 결정과 무관
-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힘겨운 결정을 존중
- ▲검찰은 이번 합의에 결코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

햄버거병 피해아동 가족과 한국맥도날드 간 민사합의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12일 피해아동 가족은 한국 맥도날드와 전날 법원 조정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맥도날드측이 밝힌 합의 조정 내용으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사는 결정과 무관합니다.

맥도날드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 당시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 동안 피해아동과 가족들은 맥도날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가까이 지켜보았기에 피해아동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잘 치료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동안 은폐되어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제3자 개입을 차단한다는 맥도날드의 악의적인 합의 내용에는 유감입니다. 맥도날드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서둘러 당사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합의에 결코 개의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와 시민 300명은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6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패티 3천만개 정도 남은 사실을 맥키코리아부터 전해 듣고도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또 문제의 패티가 모두 소진됐다는 허위 내용을 세종시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 은폐한 한국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 ▲4월 3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10월 29일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 곰팡이버거 맥도날드 아웃! 검찰은 언더쿱 엄정 수사하라!’, ▲11월 3일 ‘공익신고자 색출은 중범죄-맥도날드는 내부제보자 찾을 시간에 언더쿱 문제 해결하라!’ 등 총 다섯 번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맥도날드 햄버거병 진상조사촉구 McOUT(맥아웃) 캠페인, 릴레이1인시위, 상임위 국정감사 대응 등 한국맥도날드가 처벌 받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여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와 시민 300명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 검사)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2016년 세종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맥키코리아의 위생검사를 담당했던 손모씨의 검찰심문조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차 수사 당시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3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직원들의 공익신고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언더쿱(패티 덜 익음 현상)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은폐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한 햄버거병 피해자는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조사의 발단이 된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 그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3천만개가 유통되었던 사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은폐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 합의를 이유로 맥도날드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해줄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